

조선 초 소조불상서 다량 복장품 발견

고불선원, 복장 개방... 옥제 약사불·진신사리 등 나와

조선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조 불상 복장에서 다량의 유물이 발견됐다.

충주 고불선원(원장 석암)은 “지난 3월 9일 고미술협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조불상을 감정 의뢰한 결과 복장물로서 조선 초기 명문과 다량의 유물이 발견됐다”고 3월 23일 밝혔다.

김중훈 고미술협회장, 이오희 문화재청 동산문화재분과위원 4명이 개봉해 발견된 복장 유물로는 사리함을 비롯해 사리 9과, 관세음보살 진언, 반야심경 진언, 부처, 옥제 약사여래좌상 등이다.

사리함은 청동을 두들겨 은박을 입힌 것이며, 9과의 사리는 크고 영롱해 진신사리로 추정된다. 사리함에 삼베로 싸인채로 발견된 옥제 약사여래좌상은 소조불상보다 먼저 제작된 고려 시대의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당시 개봉을 담당했던 이오희 문화재위원은 “역사적으로 매우 귀중한 자료가 발견됐다”며 “옥제 불상은 물론 목판본 인쇄, 부처 등에 대한 연구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주 고불선원은 소조여래좌상을 주불로 모시고 있으며, 다양한 유물이 소장돼 있다. 소조여래좌상은 충북도문화자료 제 78호로 지정돼 있으며 충북도 유형문화재 제357호 묘법연화경 1권(1574년 월악산 덕주사 간행), 제 358호 묘법연화경 1권(1634년 복천사 간행)



충주 고불선원 주불 소조여래좌상에서 발견된 복장품인 고려 옥제 약사여래불상(사진 위)과 사리 9과(사진 아래)

등 불교문화재 이외에도 청동기 시대 돌도끼 등 식물 27점은 충주박물관에 위탁돼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관련 자료 1,350점을 조사, 연구 중이다. 신성민 기자

사찰음식 원형은 ‘수행’ 과 ‘상생’ “대중화 위해 원형성 고민해야”

김현구 교수, <정토학 연구> 기고 논문서 주장

사찰음식 원형 문화 파악을 위한 원로 스님들을 인터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논문이 발표됐다. 이는 한국 사찰음식의 원형을 가늠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김현구 전남대 BK21플러스 학술연구교수는 <정토학 연구> 24집에 기고한 ‘한국불교 식문화의 특징과 연구 활성화 방안’을 논문을 통해 사찰음식 원형을 고찰했다.

김 교수가 토대로 한 조사결과와 2013년 3월 26일부터 6월 21일까지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이 기획한 ‘사찰음식 원형문화 파악을 위한 원로 인터뷰 조사’다. 조사에서는 원로 스님과 공양주, 사찰음식 연구가를 대상으로 인터뷰가 실시됐다.

김 교수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식 △국과 탕류 △된장 △나물 △생채와 무침 △김치 △장아찌 △튀김 △전과 구이 △다과 등에 대한 1970~80년대 사찰음식 원형의 추이를 살폈다.

주식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1960~70년대에는 쌀만으로 밥을 지어 먹지 않고 다양한 식자재를 넣어 분식을 했다. 국과 탕류에서는 제철에 나는 산나물이나 재배한 야채 등을 넣고 끓여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동화사에서는 추석을 전후한 가을에 팔공산 적송 아래 송이를 채취해 송이국을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원로 스님, 공양주 등 인터뷰해 주식부터 장류·국·다과 등 조사 1970·80년대 사찰음식 원형 탐구

또한 간장과 된장과 같이 오랫동안 저장 가능한 발효식품이 사찰 식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고, 식자재 본연의 맛과 향을 해치지 않는 단순한 조리법을 선호했다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사찰음식은 단순한 채식 위주의 식단이 아닌 균형 잡

힌 식단을 구성하고 있다”면서 “사람의 몸과 자연을 밀접한 상생의 관계로 파악하는 불교 정신에 입각한 식문화화를 구축해 왔다. 현대에도 사찰음식이 대중에게 향유되는 방향도 그 근본정신에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양한 사찰음식 문화에 대한 원형을 소개한 김 교수는 스토리텔링 등을 통한 콘텐츠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스토리텔링 사례는 한국불교를 이해하고 접근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찰음식이 문화 코드로서 재가자를 넘어 일반대중에게 인기를 누리는 지금, 사찰음식 대중화를 위해 반드시 한국 사찰음식에 대한 원형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원로 스님들의 인터뷰 속에는 사찰음식의 본래 정신과 수행자의 자세가 충분히 녹아있다”면서 “원로 스님들의 증언에 기초한 사찰음식에 대한 기술자료를 자료의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i.com

한국불교와 인도철학 상관관계는 무엇일까

원효연구·인도철학회 세미나

한국불교와 인도 철학에 대해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원효연구사업단(회장 박태원)과 인도철학회(회장 정승석)는 공동으로 오는 4월 9일 오후 1시 울산대 인문관에서 ‘한국불교와 인도철학’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주제 발표는 △원효전서 번역의 몇 가지 문제들·한문본서의 번역 조건들과 관련하여 (박태원 울산대 교수) △〈대승기신론소별기〉 표종체문의 번역 사례 연구 (강찬국 울산대 교수) △〈집량론〉과 〈기신론〉의 귀경계 비교 연구 (성청환 동국대 교수) △좌우 굿구멍 호흡과 스트레스의 상관성에 대하여(김재민 동국대) △디그나기의 언어철학 (배경아 울산대 교수) △아비달마 초기 논서에 나타난 사마타와 위빠사나의 위상(김준호 울산대 교수) 등이 진행된다.

논평 및 토론에는 조은수 교수(서울대), 최원호 교수(연세대), 권서용 교수(부산대), 김동환 교수(동국대), 박기열 교수(동국대), 임승택 교수(경북대)가 나선다. 하성미 기자

문화유산 국제개발 통합전략 모색 논의

문화재청, 유네스코 유산 워크숍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와 공동으로 ‘2016 유네스코 유산 국제개발협력 워크숍’을 3월 30일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개최한다.

올해 세 번째를 맞는 이번 워크숍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의 통합전략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워크숍은 기소 라오 전(前) 세계유산센터 소장의 ‘지속가능개발 목표와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벨기에, 일본의 전문가들이 ‘선진국의 문화유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사례발표를 각각 진행한다. 이어서 ‘한국의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 전략’을 주제로 한 문화재청의 발표가 펼쳐진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한국문화재단, 한국국제협력재단 등 국내 관련 기관들이 모여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의 통합전략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오대산 한암선문 위상을 논하다

한국불교학회, 4월 22일 ‘한암선문’ 주제 학술대회

한국불교 전통을 계승해온 오대산 한암선문의 위상과 지위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이뤄진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권관준)은 오는 4월 22일 낮 12시 30분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한국불교 전통의 계승과 한암선문’을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윤창화 민족사 대표가 ‘한암 종원과 봉은사’를,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이 ‘나옹의 공부 심절목에 대한 한암의 답변과 관점’을, 이원석 동국대 다라마칼리지 교수가 ‘한암 종원과 탄허 태석’을, 탄허박물관 연구실장 문광 스님이 ‘탄허 태석과 동양철학’을, 김병룡 충남대 교수가 ‘현직과 산승일지’를 발표한다.

이어 전보삼 경기도박물관장이 ‘원보산과 상원·월정사관 서적’을, 원영

상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사무국장이 ‘난암 유종목의 수행교화와 일본행적’을,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가 ‘보문 현로와 이타행’을, 고영섭 동국대 교수가 ‘만화 회찬과 월정사’를, 이성운 동방대학원대 연구교수가 ‘한암 종원과 이종아’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한국불교학회는 “한암과 그 선문들은 20세기 이후 오대산 지역을 성역화하고 불사의 간행, 사교의 정비, 불전의 국역, 수련원의 설치와 교육, 대일본 관련 대응 등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한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려고 부단히 진력해 오고 있다”면서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불교사에서 오대산과 한암선문의 위상과 지위에 대한 학문적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설태수 세명대 교수

동서비교문학 기고 논문서

1970년대부터 불교에 심취

작품엔 불교적 세계관 내포

W.S 머윈은 미국 17대 계관시인으로 활동 중이다. 장로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1970년대 이후 불교에 심취하면서 참선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거주지를 하와이로 옮기기도 했다. 머윈의 불교적 시 세계를 고찰한 논문이 발표됐다.

설태수 세명대 교수는 <동서비교문학 저널> 34호에 기고한 논문 ‘W.S 머윈 시에서의 선(禪)’을 통해 불교적 관점으로 머윈의 작품 세계를 살펴봤다.

가장 먼저, 설 교수는 머윈을 “독자로 하여금 당황하게 함으로서 스스로 깨닫게 하고자 했던 시인”이라고 평가하면서 “머윈의 시에는 선적 화법이 적지 않게 표출돼 있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본



W.S 머윈의 모습. 장로교 목사 아들로 태어난 그는 1970년대 이후 불교에 심취해 참선을 연구하게 된다. 이런 선적 천착은 그의 시 세계에 고스란히 담겼다.

격적으로 언급된 것은 없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설 교수는 머윈의 시를 ‘해 탈 시간에 버섯 찾기’ ‘공기’ ‘잠의 무게’ ‘스승 찾기’ 등을 불교적 분석했다.

신성민 기자

늙지 않고 청춘을 돌려주는 건강 부귀 장수 비전법인 지구촌 최대이슈 이생애 명부를 지우고 천부에 명부를 올려 성불도통, 수명연장, 천하대도 법회

부처님께서도 천안통을 하지 않은 제자들은 내 제자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오통은 누구나 하지 만 육통자재인 천안통으로 비구 비구니 보살 대중들도 성불도통 하는 것이고 진광 빛을 보지 못하기에 업에 쌓여 선교, 불교, 유교, 도교에서도 찾는 천공통 철자기도 대웅맹정진 양력 2016년 4월 7일 - 8일 무박2일 전국경향각지 종교를 초월 도통군자 저변확대는 물론 꺼져 가는 이그러진 법도를 바로세울 인제 도인 선녀 지망생들에게 이소식을 전하며 그 누구도 주머니 없으므로 말법 병겁에는 도를 통한자만이 일체조상 병의 잡신 귀신 천신 만신등을 천도 해원 시킬수 있으므로 천하대세를 아는 자는 단한번의 수행으로도 각종질병과 초상상문 이사 주당 혼인주당 각종 귀신 잡신에 병의된자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의통능력을 얻어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하는 대 웅맹 정진으로 진광 진법 빛의 신통조화능력을 얻어 신인도통, 해원 상생, 수명연장, 부귀장수, 신선문화, 복지창달로 인류를 구할수 있는 강력한 초능력 얻는 무 박2일 천하대법에 입문하시어 그간 방황하던 종교수행에 신선도인, 성현, 선녀, 지상신신으로 해원신, 조화신, 보응신을 부리고, 단번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진광 진법으로 일류스승의 도를 통하여 법계에 천인류를 살리고, 만인을 제도하는 만사형통 모든 귀신 잡신 천신 만신을 부리는 천하제일의 도통군자 되는 법이고 현재 부리고 있는 각종 신들은 자기대에서만 부리고 자 손으로 가지않는 해원 상생법으로 계론, 시론, 생천론으로 해원상생하는 법이니라.



거부정자로 사신 불마귀입자 태일 02821-6622 010-3239-3110



원성 무상사 태일대중사

- 입 제 일 : 2016년 4월 7일(음력 3월 1일) 목요일 오후 9시
- 해 제 일 : 2016년 4월 8일(음력 3월 2일) 금요일 오후 9시
- 동 참 비 : 기도 및 교재비 30만원 (구좌번호 농협 029-01-167866 곽한영)
- 준 비 물 : 필기도구 간편복장 및 세면도구
- 상담전화 : 032)502-6625 010-9292-3110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204-4번지 부평시장입구 천지공사 용천사

일체종교가 하나로 되는 금강진법수육보영 천지공사 진광미륵달마 천궁 도통회 총본산 사)대한불교 달마조계종 용천사 환성태일대사

사단법인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제10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6년도 초급·중급·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 가. 초급과정(2개월)
 - 수주 : 도량식, 중송
 - 배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관공 : 삼보통칭, 상단 중단 관공, 각단공공, 요령, 묵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온(매물이온), 대령, 관육, 옹호계 (신중적법 399,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사식, 관음의식, 상응연법, 화엄시식, 구병시식, 불송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송, 요점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온, 종시연법, 점안식, 시더림(대배), 예수제의식 등
2. 개 강 ■ 2016년 4월 7일 목요일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중·고급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견학및합계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북성 9길 28(북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